

혼미노시의 역사

현존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는 이곳 미노 지방의 종이입니다. 702년에 쓰인 호적으로 고대의 보물과 공예품을 소장한 나라현의 쇼소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麻)나 인피 섬유를 사용한 제지법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720년에 쓰인 『일본서기』에는 서기 610년에 한반도의 불교 승려에 의해 중국의 제지법이 일본에 전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종이 뜨기 기술은 아마도 그보다 더 이전인 6세기 중반에 불교 전래와 더불어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와시의 기원

마는 섬유를 풀어헤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닥나무나 삼지닥나무(팥꽃나무과의 나무), 안피(산닥나무속의 관목)라는 식물을 사용하는 기법이 일본 곳곳에서 발달하여 닥나무나 안피로 만든 종이가 와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와시 제작은 처음에는 농가에서 겨울철 수입원으로 시작했지만, 이윽고 각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미노 와시도 그중 하나로 1,300년이 넘도록 거의 변하지 않은 제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와시와 세금

와시는 쌀이나 소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들과 나란히 조정이 세금으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곳곳에 불교가 퍼지면서 와시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나라 시대(710~794년)에는 경전의 필사나 호적 등의 기록에 미노와시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수도를 교토로 옮긴 헤이안 시대(794~1185년) 이후 미노 지방은 교토와의 접근성이 좋아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미노와시의 수요 확대

12세기에 가나가와현의 가마쿠라에 막부가 열리면서 미노와시는 무사들 사이에서 경사가 있을 때 증정품이나 답례품으로 보급되었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 중반에 걸쳐 미노 지방을 다스린 도키 집안은 오야다(현재 미노시의 일부)에 종이 시장을 열었습니다. 종이 시장은 한 달에 여섯 번씩 열렸는데, 교토나 오사카 등지에서 상인들이 미노와시를 구입하러 왔습니다.

전투와 미노와시

1600년, 미노 지방의 북쪽에 인접한, 깊은 산속의 히다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가나모리 나가치카(1524~1608년)는 전국 시대 말기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측에서 싸웠습니다. 도쿠가와 군의 결정적인 승리에 따라 100년이나 계속된 일본의 내전과 사회적인 혼란이 끝을 맺고,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을 통일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군사들을 지휘할 때 사용했던 지휘채에는 미노와시를 긴 직사각형으로 잘라 만든 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미노와시노사토 회관에는 흑칠을 한 지휘채의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노와시는 도쿠가와 막부에 납입되는 특별한 와시가 되었으며, 미노와시를 만드는 장인들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 조세 일부를 면제받았습니다. 가나모리 씨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 미노 지방의 영지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가와 강 연변에 있었던 항구를 확장하여 마을을 만들고 와시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켰습니다.

미래를 지키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노와시는 인쇄기와 서양 종이에 밀려 쇠퇴했습니다. 생활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등롱이나 장지문 등 일상용품을 만들기 위한 와시 시장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1,000년 전부터 같은 기법으로 종이를 제작하는 장인들이 19세기 말에는 수천 명 있었지만, 현재는 정말로 손에 꼽을 만큼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미노와시는 주로 전통 공예품이나 문화재 및 예술 작품의 복원 작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이며, 미노와시 제법을 일본의 공예 유산으로 유지하려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혼미노시 제법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